

전남 어디든 자전거로 갈 수 있다

2018년까지 9천억 투입 2천341km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전남 모든 지역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총 연장 2천341km의 자전거 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11일 전남 해안선 자전거 도로망과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총 연장 2천341km의 자전거 도로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최근 244개 노선(안)을 확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오는 9월까지 전남도가 제출한 노선(안)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자전거도로도 기초 조사와 용역 결과 등을 통해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명 ‘그린 웨이’(Green-Way) 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9천3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구간은 ▲목포 연동광장~대불 국가산업단지(12km) ▲신가교~나주향교(7km) ▲나주시~광주 서구(23km) 노선이며, 이 중 올해 광주 서구~나주시 구간 4km, 신가교~나주향교 간 4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가 개설된다.

전남도는 영광~목포~진도~고흥~여수~광양을 잇는 1천476km의 해안선 자전거 도로망을 기준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지점을 연결, 전남도 모든 지역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안선 자전거 도로망은 남해안 선 벨트 산업과 연계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사업이 보다 빠르게

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노선(안) 확정에 따라 해안선 구간과 내륙의 주요 문화·관광명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조성은 전남의 관광레저 산업과 최근 순천에 유치한 마그네슘 공장을 바탕으로 한 자전거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청정 해안과 남도의 절경을 자전거를 타고 만끽할 수 있게 돼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 신설·확장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녹색의 땅 그린 웨이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자전거를 자동차처럼 체계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을 개정해 일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광역시·도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전거 등록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 시행안을 마련하고서 내년 시·도별로 운영한 뒤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남 지역간 연결도로 구축사업				
시군명	시점	종점	노선수	연장(km)
22개 시·군			244	2,341.42
목포	삼향동	목암동	7	43.18
여수	오림삼거리	울촌면월산리	11	52.3
순천	도사동	낙안읍성	15	143.65
나주	금천면	운곡동	14	120.8
광양	광양읍	금호동	8	84.9
담양	고서면(광주경계)	금성면	13	144
곡성	삼기면	옥과면	9	134.76
구례	구례읍	토지면	7	62.7
고흥	고흥읍	대서면	6	85.98
보성	문덕면	회전면	6	103.77
화순	교통광장2	너릿재타널	7	51
장흥	대덕읍	유치면	17	95.1
강진	도암면	병영면	4	73.41
해남	삼산면	문내면	18	170.26
영암	영산강하구둑	영암읍	25	178
무안	현경면	삼향면	15	140.86
함평	만흥면	학교면	14	103.43
영광	화정리	고창군경계	9	119.58
장성	남면(광주경계)	장성읍	12	194.2
완도	군외면	고금면	6	40.02
진도	군내면	의신면	8	159.54
신안	지도읍	임지면	13	39.98

등록 방법은 자동차 차대번호나 번호판과 같이 자전거의 고유번호나 별도의 번호를 스티커 형태로 붙이거나 음각으로 새기는 방식, 자전거의 특징과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내장한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강진 월하마을 전통 빨래터

입구의 개울에 26㎡ 규모의 전통 빨래터를 조성했다.

강진군 성전면 월하마을 아낙네들이 10일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09년 참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마을 입구의 개울에 26㎡ 규모의 전통 빨래터를 조성했다.

<강진군 제공>

광양 음식폐기물로 퇴비 생산 판매

음식물 부산물 비료 판매조례안 마련... 내년 시행

광양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연간 1천500여t 생산되는 부산물 비료(퇴비)를 유상 판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 판매조례(안)’를 마련, 이달 안에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퇴비 유상판매와 9개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무상공급 활용을 등 기준을 마련하고 농협·비료 판매업자 등을 통한 위탁

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 농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판매단가를 고시로 정하고,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으로 귀속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는 물론 부산물 비료판매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9억여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공사를 지난해 12월 착공해 오는 9월말 완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증설공사가 마무리되면 1일 50t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또 1일 20t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폐자원 순환형 사회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 토지 지적 불부합지 일제 정리

〈不符合地〉

2011년까지 2만5천필지

전남도가 지적도 등 공부상의 면적과 경계에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 불부합지(不符合地) 2만5천여 필지를 현실 지목으로 일제히 정리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4개월에 걸쳐 자체 구축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적 불부합지를 조사한 결과 도내 2만5천378필지가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비와 시·군비 3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1년까지 현 이용 상황대로 지적공부를 무료로 정리해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2011년 말까지로 토지소유자가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정리를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지적측량비와 분할정리 수수료 및 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준다.

전남도가 지적 불 부합지 일제 정리에 나선 것은 1960~70년대 각종 새마을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관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 불 부합지 일제 정리가 완료되면 SOC(사회간접자본)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농촌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요트타고 명사심리 감상해요

완도 12~13일 무료 체험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인 완도군 신지 명사심리 앞바다에서 ‘세일링 요트’ 체험 행사가 열린다.

완도군은 12·13일 이틀간 피서객을 무료로 승선시켜 명사심리 해수욕장 주변 해역을 도는 요트 체험 행사를 전남도, 대불대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체험행사에는 36피트 1척과 31피트 2척 등 모두 3척의 ‘세일링 요트’가 동원된다. 36피트 요트에는 9명, 31피트에는 7명을 태워 해수욕장 주변을 40~50분 정도 순회할 예정이다.

승선 체험객은 행사 당일 현장



에서 접수하며, 체험에 앞서 승선 안전교육, ‘세일링 요트’ 특성, 간단한 조작법 교육도 받게 된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무안 ‘백련 떡국’등 160억달러 수출

독일·캐나다 등 계약 체결

무안의 지역 특산품인 백련(白蓮)을 활용해 만든 떡국과 국수, 양파음료 등 기능성 식품 160만달러 어치가 외국으로 수출된다.

무안군은 11일 무안 연 산업축제 기간중 외국 구매자를 초청해 수출협약을 맺은 결과 168만 달러어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지농산’은 독일과 캐나다에 백련 떡국과 떡볶이 5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범우’는 일본과 미국·호주·싱가포르에 50만달러 규모의 기능성 라면과 백련 국수를 판매하기로 했다.

‘청수식품’은 일본에 기능성 소금 15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현대 영농조합’은 대만에 2만 달러 어치의 양파

음료를 수출하기로 약속했다. 또 ‘프롭셀’은 미국과 일본·독일에 백련으로 만든 청국장과 된장 등 기능성 식품 35만 달러어치를 수출할 계획이다.

무안군에서는 10여개의 지역업체에서 60여 종의 백련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업체들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국제박람회에도 참가해 무안백련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백련 제품이 세게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웰빙 추세와 대표적인 친환경 작물이라는 영양학적 평가와 함께 순백 이미지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한식당 해외진출 지원

aT 광주전남지사

aT(농수산물 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는 한식당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림수산물 식품 및 식재료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 진출 한식당 개설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한식당 및 외식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사업자로 해외에서 한식당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사업대상자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www.at.or.kr)의 자금지원 정보란을 참고하거나 aT광주·전남지사 (062-940-7013, 70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le@